

[현자비정규파업23일차] “우리 파업 정당하다!”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0.12.07 15:40

파업투쟁 릴레이응원전...현대차, 폭력 휘두르며 고교생 대체인력 투입



▲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빌딩에서 휘황찬란한 불빛이 쏟아진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숨통을 옥죄던 그 자본의 심장부를 쏘아보며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뉴스]



▲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흑한의 추위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지 못한다. [사진제공=통일뉴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12월7일로 23일째를 맞은 가운데 투쟁 주체인 조합원들은 완강히 싸우고 있으며, 가족과 연대단위들도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대책위가 상경투쟁과 전국순회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들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2공장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상경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농성을 잇고 있다. 사측 관리자와 경찰이 천막설치를 폭력으로 막는 바람에 비닐 몇 장을 가로수에 묶어 흑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5일 양재동 노숙농성 현장에 "6일 오후 5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갖고 와서 철거하라고 협박했다. 강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허술한 비닐마저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연대단위들이 달려가 연좌하자 구청 측은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둘러보다 그냥 돌아갔다. 하지만 언제 농성장에 다시 들이닥쳐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농성현장을 유린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오전부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1공장 12라인 일부를 가동했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시간당 26대를 생산하는 이 라인을 몇 시간 돌려 자동차 유리문 등 일부 부품들이 미달된 차량 8대를 만들었다. 사측이 억지로 돌려 불량차량을 생산해 빈축을 산 12라인은 당일 오후 2시 경 다시 멈춰섰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1공장 점거파업에 들어간 직후인 11월16일부터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잔업·특근거부, 하루 6시간 파업 등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아산공장도 공장 라인을 잡기 위한 조합원들의 싸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노조와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으며 파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1공장 점거직후부터 농성현장으로 들어가는 물과 음식, 침낭, 의약품 등 필수품을 차단하고 단전 단수조치까지 되풀이하고 있다. 급기야 4일 오전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농성장 침탈을 시도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닐 한 장을 덮고 칼바람 부는 추위 속 긴밤을 지새운다. [사진제공=통일뉴스]



▲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 연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뉴스]

현대차 사측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는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6일 1공장 밖의 조합원들이 1공장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사태를 알리기 위해 선전전을 진행하려 했으나 회사 관리자 200여 명이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

회사 관리자들은 스타렉스 차량과 구내버스에 조합원들을 강제로 태워 해안문과 4공장문 앞에 버리고 갔다. 관리자들은 차량에 타지 않은 조합원들을 땅바닥에 내팽개쳐 질질 끌어냈고, 일부 조합원은 옷이 찢어지거나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또 정상적으로 근무한 3공장 조합원들이 노조 일상활동으로 식당 선전전을 하려 하자 관리자들이 몰려와 3공장 의장부 식당에 들이닥쳐 무차별 폭력을 일삼았다.

그동안 울산,전주,아산공장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약 140여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 관리자와 용역으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증상을 입어 아직 까지도 입원치료 중인 조합원들이 상당수다. 뿐만 아니라 1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3공장 장병운 대표는 구속됐다.

15일 점거파업 직후부터 공장 내 농성조합원들은 사측의 물품반입 차단으로 인해 하루 한 끼를 김밥으로 때우며, 강추위가 엄습하는 요즘 비닐 한 장 덮은 채 잠을 청하고 있다.



▲ 매일 저녁 양재동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뉴스]

파업투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가공할 폭력을 휘두르는 현대차 자본은 또 한편으로 불법 대체인력을 동원해 맹비난을 받고 있다. 사측은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고등학생들까지 대체인력으로 데려다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역 공업계·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데려다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야간 철야작업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급기야 2공장에서 일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작업 중 장갑 낀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손가락을 다쳤다. 자칫 영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

민주노총은 7일 '이럴 수는 없다! 어린 고교생까지 끌어들이는 현대차-안전교육조차 못 받은 학생들, 위험천만' 제하의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은 외면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인 현대차 자본을 강력히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법에 따라 교섭하자는 노동자들에게 포크레인을 휘두르고 깡패와 다름없는 용역인력과 관리자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현대차. 이 무지막지한 집단에게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 허망할 지경”이라고 말하고 “우리 노동자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대차는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직접행동의 일환으로 전국순회에 나섰다.

이들은 5일부터 6박7일 간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을 포함해 전국 금속 사업장을 순회하며 불법파견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전국순회투쟁단은 각 단위노조 간담회와 선전전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알려내고 불법파견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편

금속노동자들의 실질적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가족대책위도 상경해 정치권을 만나 1공장에 대한 인도적 물품반입을 촉구하고, 정몽구 회장 집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6일 상경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을 추진, 농성장 음식물 반입과 의료진 방문 등 인권적 인도적 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실사를 요청했다. 또 현대자동차(주)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가족대책위 상경투쟁 둘째날인 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제 단체·진보정당 대표자들은 서울 한남동 정몽구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자본을 향해 구사대와 용역강패를 동원한 야만적 폭력 중단과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는 매일 저녁 7시30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현대자본의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는 연대 단위 성명서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8일 오전 11시 양재동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회견 직후 이들은 “진짜 사장이 책임져”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본사 앞 1인시위조차 관리자와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며 봉쇄해왔다.



▲ 현대차 사측은 울산공장 내 노조 일상활동인 선전전마저 가로막으며 폭력을 휘둘렀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